

‘가처분소득 연 804만원’ 국내 노인 절반 가난...여성·수도권 ↑

복지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 경상권·전라권 순, 농어촌지역 높아

우리나라 노인 중 절반 가까이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 중엔 여성과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더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노인의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20%(약 1000만명)를 표본으로 부처별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 데이터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노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별 분포(가처분소득 기준)는 여성 60.3%, 남성 3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은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연금 등 이전소득을 보탠 것이다.

빈곤노인의 지역별 분포에서는 수도권 거주자가 39.6%로 제일 많았다. 이어 경상권 거주자가 전체의 30.5%, 전라권 거주자가 13.4%였다.

이들의 가처분소득 수준은 빈곤하지 않은 노인보다 1000만원가량 낮았다. 비(非)빈곤노인의 연 가처분소득이 1797만원인데 비해 빈곤노인의 연 가처분소득은 804만원이었다.

연금·사회보장금을 제외한 빈곤노인의 시장소득은 연 평균 고작 135만원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대부분의 소득이 국가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빈곤노인이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45.6%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노인 빈곤율이 49.0%로 남성 노인 빈곤율인 41.2%보다 8%포인트 정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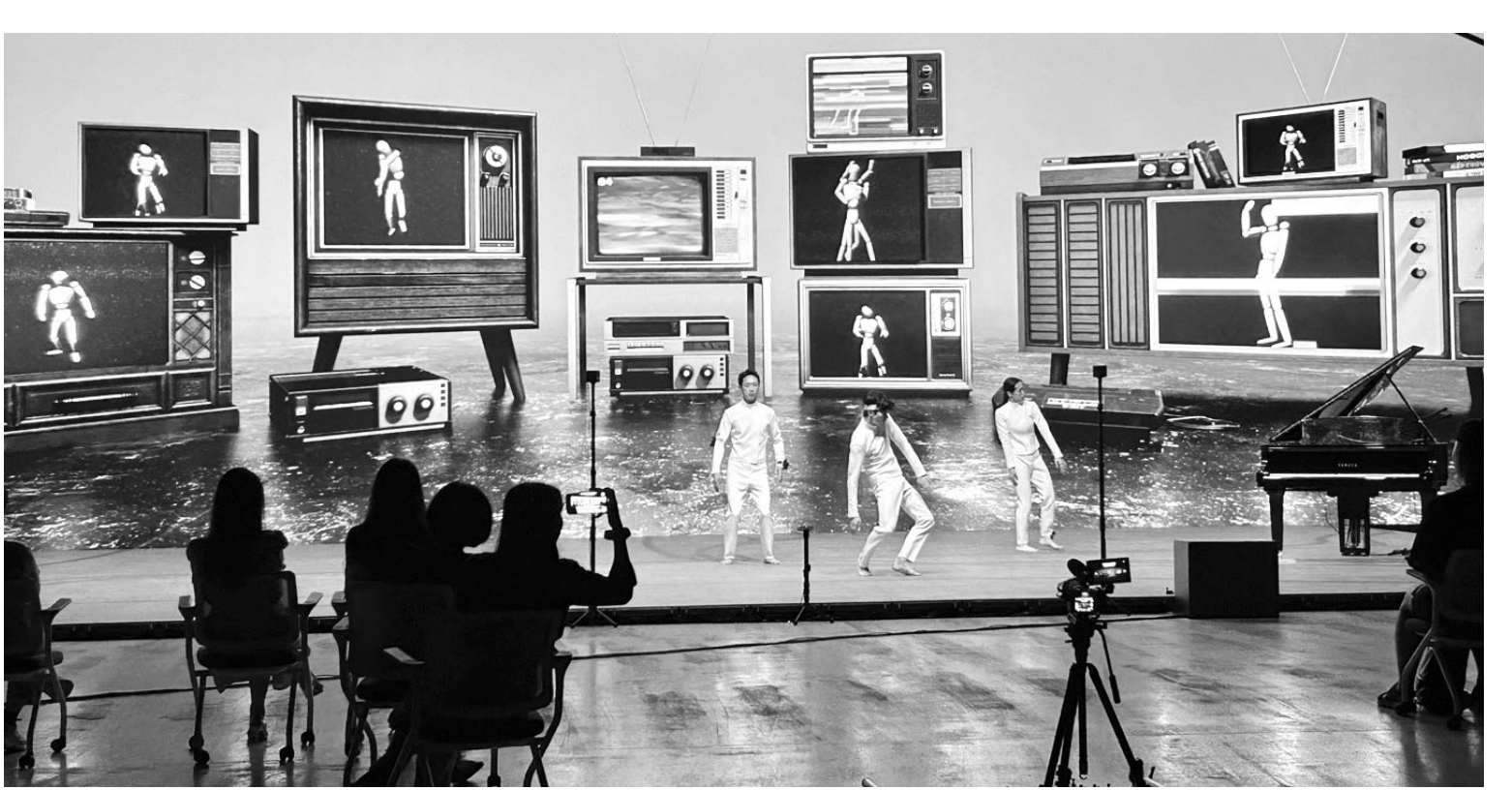
다만 이같은 빈곤율은 옹동 등 사적 이전 소득을 제외한 것으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통한 빈곤율 대비 5~7%포인트 가량 높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통계청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20년 38.9%(가처분소득)였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초기 노인인 60~69세의 빈곤율이 35.0%로 가장 낮았고 나이에 따라 점점 높아져 80세 이상에서는 56.5%가 빈곤노인이었다.

지역별 노인 인구 대비 빈곤노인의 비율을 따져 보면 농어촌 지역이 가장 높았다. 농어촌의 노인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 57.6%였고, 중소도시가 47.0%, 대도시 42.1% 순이었다.

성별·지역별 노인빈곤율을 합산해 파악한 결과 ‘여성이면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남성이면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빈곤율이 22.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2022년 광주시 남구 송암로에 개관한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내 스튜디오에서 영상 촬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공>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뜬다

1480㎡ 스튜디오·미디어 프로젝터 등 전국 최고 수준 제작 환경 제작 명소 입소문 상반기 예약 마감...연구개발·인력 양성 등 지원

실감콘텐츠 제작 핵심 거점인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가 영화와 드라마 촬영 명소로 떠오르면서, 상반기 예약이 짝 잘 정도로 흥행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7월 광주시에 따르면 2022년 11월 개관한 GCC는 1480㎡ 규모 실감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10G 네트워크, 방송 전문 영상카메라, 미디어 프로젝터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제작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제작 스튜디오가 실감 콘텐츠 제작 명소로 입소문 타면서, 올 상반기에만 12건의 드라마, 공연 제작 입장이 확정돼 예약 완료된 상태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에도 조기 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콘텐츠 전문 제작사 스튜디오 X+U의 드라마 ‘밤이 되었습니다’, EBS 성별이

예방 프로그램,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이소방’ 등이 이곳에서 촬영한 작품들이다.

광주시는 공간별 특화사업을 추진해 GCC의 위상을 강화하고 가상콘텐츠 제작에 효율성이 높은 소재를 개발하는 등 제작 환경도 보완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GCC를 중심으로 스튜디오 기반 영상 촬영, 연구개발, 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기업과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화엄사 삼세불도’ 등 4건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불교 유산 3건·유교 유산 1건

전남도가 조선 후기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구례 화엄사 각황전 삼세불도’ 등 3건과 조선 후기 인물 입서를 기리는 ‘나주 임서 신도비’ 1건을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지정 예고된 문화재 가운데 ‘구례 화엄사 각황전 삼세불도’는 1860년 화승 해운당 약관과 30명의 화승들이 조성한 세로 길이 6m가 넘는 대작 불화다. 삼세불도란 과거불·현재불·미래불을 그린 그림이고, 화승은 불화를 전문적으로 그리거나 회화 작업에 종사하는 승려다. 대시주자인 임응환과 구례현감 이종무 등이 왕실과 종실의 안병,

세자의 탄생, 선왕선후의 천도 등을 기원하며 발원해 제작한 것이다.

조선 후기 왕실 발원 불교미술과 제작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고, 대작이면서도 안정적 구도와 뛰어난 필력 등 19세기 전라도 지방의 화풍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예술적 가치도 지녔다.

‘구례 화엄사 대웅전 동종’은 순천 일대에서 활동하던 김효진이 우두머리 장인으로 1722년 제작한 유일한 작품이다. 제작 연대가 확실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며 18세기 동종 양식과 사자 계열 주중장들의 계보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사장은 왕실이나 정부 관서에 포함되지 않은 수공품

제작 장인이고, 주중장은 종을 주조해 만드는 장인이다.

‘구례 화엄사 구층암 동종’은 조선 후기 활동한 사자계열의 대표적 주중장인 김성원이 보조 장인 도움 없이 단독으로 만든 작품이다. 주중기를 통해 제작 연대, 봉안 지역과 사찰, 발원자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나주 임서 신도비’는 입서를 기리기 위해 김상헌이 글을 짓고 이경재가 글씨를 쓴 것이다. 신도비는 조선시대 정2품 이상의 관직과 업적, 학문 등으로 후세에 모범이 된 사람의 묘에 세운 비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2024 고소득 추천 목록

포포나무	계릭스 빅걸 선물리픽×생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선발된 최고 크기의 포포, 최대 과중 800g
리만스 달라이트	프로리픽×생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육중된 품종, 달콤한 향에 뛰어난 품질을 자랑
마리아스 조이	최대과중 631~704g, 년중 수확량 우수 유명 과수 학자가 지칭한 최고 맛있는 포포
사과	신품종부사 후지사과 인피파와 반사펠리를 깔지 않아도 동서남북 색상이 잘나고 저장성이 우수하며 신맛은 적고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감	감풍, 원주 태추단감 슈퍼대풍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수퍼 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대풍종에 맛이 뛰어난 식감을 많이 합니다.
업나무	민업나무 가시 없는 민업나무 가지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두릅	민두릅 참두릅 가시 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사과, 신품종 후도,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4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종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갑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모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 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 땅 상담해 드립니다.

갑을농원
모목상담 010-3121-7676
문의전화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 25
농협 703-02-497271(예금주 정중화)

발생암매각공고

- 입찰건명: 발생토석 매각
호남고속철도2단계 5공구에서 발생된 토석 약 100,000㎡(자연상태 모암 기준) 단, 현장 사정에 따라 전체 수량이 변경(증, 감) 될 수 있음.
구분 단위 토사 총량인 연·보통·경암 합계 비고
수원 수량 - - - 100,000 100,000 무인터널,구로터널
- 현장성명,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장소: 호남고속철도2단계 5공구 현장사무실)
가. 원 상 명 회: 2024년 03월 11일 14:00
나. 입찰등록기간: 2024년 03월 12일 14:00
다. 개찰 일 시: 2024년 03월 12일 14:10
라. 낙찰 자 선 정: 2024년 03월 13일 (낙찰자 개별통보)
- 입찰방법: 양말 매각 입찰
가. 낙찰자 결정: 공개경쟁입찰, 단가입찰(1㎡당), 최고가 낙찰제 입찰자가 제시한 1㎡당 원석대가 최고인 업체를 낙찰(예정자)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고가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운반거리가 가장 가까운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계약대리인의 운반거리 선정 방법으로 위함)
* 실제운반거리(L=2.9km)를 초과하는 추가운반은 입찰자가 시행한다.
나. 입찰 참가 자격에 걸리지않는 자는 시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계약착수 및 완료일
계약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
- 입찰 참가 자격
가. 임의계약의 경우
1) 입찰공고일 현재 공제채비율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의거 신원보증채취업 또는 공제채비율 미배당으로 등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비 기술인력 등을 갖춘 사업자로서, 현상일 현재 개발행위 준공허가를 득한 반입장을 구비해 심사받아야(24시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사업장 관련 인허가 서류를 현상일 현재 제출하여야 한다.
(아직정 및 공제 생산시설 위치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생암처리 가능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3) 일 1,600㎡이상, 월 35,000㎡이상 발생암 반입이 가능한지
나. 공통사항
1) 현상성명일 기준으로 세금이 체납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상성명 시 국제 및 지방세 원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 시 제출한 사업장(아직정 및 공제 생산시설)은 발파일 반입, 공제생산 등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입찰일제 제출서류(입찰관련 서류는 현상성명회 참석시 제출)
가. 반입장(공제생산시설 및 아직정) 위치가 명확히 표시된 위치도 1부
나. 공제 선택 폐업인 사업자 등록증 및 공제 폐업 신고수리증 1부
다. 법인인입찰경시 및 사용인간계 1부
라. 시국제 관납증명서 1부
마.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및 재직증명서 1부
-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현상성명서,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치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 문서를(현상성명시만 가능)
* 물 각 지: 호남고속철도2단계
* 계약대리인: (해태건설 (전남 무안군 청계면 서호로 358)
* 기타 문의: 시공사 (해태건설 061-454-5567 김리안 (해태인테리어 061-454-5509
2024년 3월 8일
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원~목포) 제5공구 건설공사
계약 대리인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이기수(620408-1XXXXXX)
- 최후주소: 광주 광산구 월계로 117-32, 121동 201호(월계동, 청탄산입지거리인 1차아파트)

피상속인 망 이기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단3197호로 신청하여 2024년 3월 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 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와 함께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3월 8일

- 상속인: 이준석(990514-1XXXXXX)
광주 광산구 월계로 117-32, 121동 201호(월계동, 청탄산입지거리인 1차 아파트)
- 신고기간: 2024. 3. 8. ~ 2024. 5. 18.
- 채권신고처: 상속인 이준석의 주소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